

디지털 시대의 사전 편찬의 방향* **

이 태 영 (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디지털 자료의 웹사이트 활용 |
| 2. 국어사전의 디지털화 방향 |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와 문화의 시대에 맞는 보완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 시대는 정보와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말샘’의 사용자들은 단순히 어휘의 뜻풀이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휘와 관련된 문화까지도 보고 싶어 한다. 국어사전 ‘우리말샘’이 사용자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사전으로 변모해야 한다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내용을 다양하게 서비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사 이미지 말뭉치와 텍스트 말뭉치를 연계하는 방안, 방언 이미지 말뭉치와 텍스트 말뭉치를 연계하는 방안, 고전문학 이미지 말뭉치와 텍스트 말뭉치를 연계하는 방안, 현대문학 이미지 말뭉치와 텍스트 말뭉치를 연계하는 방안, 서지적 관점에서 이미지 말뭉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제64회 국어문화회 전국학술대회(2018. 8. 23)에서 기조 발표한 논문으로 발표 후 수정하였다.

제안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자료의 소장처를 제시하고, 웹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디지털, 우리말샘, 국어사, 방언, 고전문학, 현대문학, 서지학

1. 서론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의 인터넷상의 이름은 ‘우리말샘’이다. 이 사전은 기존 종이로 된 국어사전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이 ‘내용 보기, 편집 이력, 토론하기’로 되어 있다. ‘내용 보기’에서 각종 정보가 올라온다. ‘편집 이력’은 그 내용들이 어떻게 편집되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토론하기’는 의견이 있으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문가 감수 정보’와 ‘참여자 제안 정보’로 나뉘어져서 일반적으로 ‘전문가 감수 정보’가 주어지지만 ‘참여자’가 제안을 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째, 하나의 올림말(표제어)에 대해 주어지는 사전 정보가 매우 다양하다. ‘가깝다001’을 검색하면 ‘발음, 활용, 품사/문형, 뜻풀이, 예문’이 나온다. 그리고 관련 어휘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반대말, 지역어(방언), 옛말’이 나온다. 그리고 옛말에 대한 ‘역사 정보’가 아주 자세히 나온다. 그 다음 ‘수어 정보’가 화면으로 나온다. 그리고 ‘관용구·속담’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어휘 지도’가 나온다. ‘한자어’일 경우 한자의 음과 훈이 나타나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다. 바로 이러한 장점은 부분적인 디지털 기술의 응용이다.

셋째, 이 사전은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위키피디어 사전이다. 곧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용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곧 사전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불편한 사항을 문의하

고, 제시하고, 직접 작성하여 보내면, 국립국어원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용 여부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우리말샘’은 이제까지의 종이 사전의 단점을 보완하는 획기적인 사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각종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의 변화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적어도 국가를 대표하는 국어사전이 되려면 몇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요즘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의 어휘력과 문화적인 수준이 매우 높다. 이들은 국어사전을 사용하면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는 전문 연구자들이 상상하기 힘든 다양한 어휘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각종 말뭉치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말뭉치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답을 찾아 제시해 주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 흔히 국어사전이 국어 연구의 종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전에 올린 올림말(표제어)에 대한 정보가 종합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이 목표라면, 빠른 시기에 연구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전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이미 구축된 내용을 다양하게 서비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제 문화사전으로 가야 한다. ‘우리말샘’은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말 문화사전’, ‘우리말문화샘’이라고 부를 정도로 문화적인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는 정보와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단순히 어휘의 뜻풀이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휘와 관련된 문화까지도 보고 싶어 한다. 따라서 국어사전 사이트와 다른 문화 사이트의 구성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국어학 전공자들은 대체로 표준어와 방언, 옛말 등 국어사전의 올림말과 그 구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예를 들면 고전문학 관련 용어, 국어국문학 관련 용어와 뜻풀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한글고전소설인 『열녀춘향수절가』와 『춘향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우리말샘’에서 이 두 어휘는 뜻풀이를 똑같이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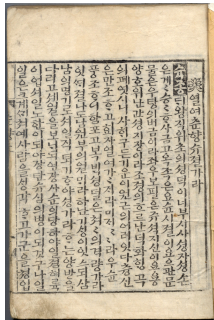
열녀춘향수절가(烈女春香守節歌)

『001』조선 시대의 판소리계 소설. 주인공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적 특권 계급의 횡포를 고발하고 춘향의 정절을 찬양하면서, 천민의 신분 상승 욕구도 나타내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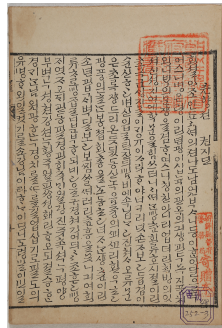
춘향-전(春香傳) 발음 품사「명사」 분야『문학』

『001』조선 시대의 판소리계 소설. 주인공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적 특권 계급의 횡포를 고발하고 춘향의 정절을 찬양하면서, 천민의 신분 상승 욕구도 나타내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또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이라는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을 통해서도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와 경판본 『춘향전』의 이미지, 글꼴, 문체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경판본 『춘향전』에는 등장인물의 하나인 ‘향단이’가 등장하지 않지만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에는 ‘향단이’가 ‘상단이’라는 지역 방언의 이름으로 등장한다.¹⁾ 이처럼 두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는 바로 디지털 개념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



<경판본 『춘향전』>

디지털 문화의 시대에 국어국문학도 빨리 문화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

1) 아래 이미지 중 경판본 『춘향전』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사전에서 제공되는 올림말 어휘의 원천 문헌과 자료를 제시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 사실 『춘향전』 계열 소설 중에서 국어사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소설 제목이 아주 많다.

소설 속의 ‘춘향’은 소설의 제목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춘향’은 단순히 소설의 제목이 아니라, 시대가 보여주는 이미지로서 다양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춘향, 성춘향, 옥중화(獄中花), 옥중향(獄中香), 여중화(女中花), 열녀 춘향, 만고열녀 춘향, 절대가인, 절세가인

소설 『춘향전』도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출판되었다. 그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조희웅, 1999:745-782 참조)

廣寒樓記(한문등사본, 한문활자본), 廣寒樓樂府(한문필사본), 南原古詞(필사본, 동양어학교(과리) 소장), 帶方花史(국문등사본), 별춘향가/별춘향전, 성렬전(필사본), 성춘향가/성춘향전, 藥山東臺(번안작), 열여춘향수절가, 오작교(국문활자본), 獄中佳人(활자본), 獄中花(신문연재본, 활자본), 益夫傳(한문필사본), 絶代佳人(활자본), 추월가(국문필사본), 春夢緣(한문활자본), 춘향가, 춘향신설, 香娘新說(한문필사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디지털 시대의 사전 편찬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2. 국어사전의 디지털화 방향

일반인이든 전문 연구자이든, 국어사전 사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에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해당 올림말에 대해 각종 이미지와 텍스트를 연결해서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국어사, 방언, 고전문학, 현대문학, 서지학의 이미지 말뭉치와 텍스트 말뭉치를 국어사전 편찬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2.1. 국어사 이미지 말뭉치와 텍스트 말뭉치의 연동

국어사 문헌 중에서 일부 이미지가 국립국어원의 ‘디지털 한글 박물관’ 사업에서 입력되었다. 현재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이관되어 운영 중에 있다.

‘우리말샘’의 올림말 『월인석보』(月印釋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풀이로만은 그 이해가 쉽지 않다. 이 뜻풀이에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독자는 세 책의 문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하이퍼링크를 달아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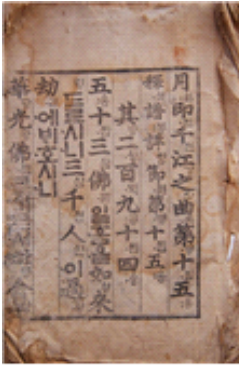
월인석보(月印釋譜)

「001」 조선 세조 5년(1459)에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간행한 책.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은 본문이 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석보상절≫을 주석(註釋)하는 식으로 편찬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 말뭉치를 활용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에서는 기록유산의 경우, ‘서지, 해제, 원문이미지, 원문텍스트, 국역’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사이트이다. 간단한 음성해설도 들을 수 있다. 이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와 연계하지 않고는 국어사전의 디지털화는 요원하다.

현재 ‘우리말샘’에서는 ‘옛말’에 대한 역사 정보가 아주 자세히 나온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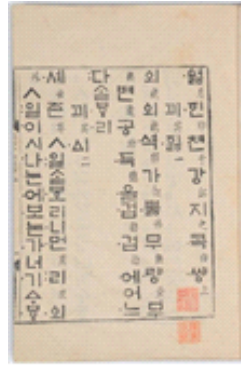
2) 아래 사진 중에서 『월인釋譜』 15권과 『釋譜詳節』 19권은 ‘디지털 한글박물관’에서, 『月印千江之曲』 상권은 ‘국가문화유산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한 것이다.



<『월인구경』 15권>



<『월인구경』 19권>



<『월인구경』 상권>

정보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국어 어휘의 역사 검색 프로그램' 개발팀이 만든 기초 어휘를 포함하여, 국어원에서 작성한 어휘까지 총 3,300여 개(검색어 14,000여 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역사 정보에는 수많은 문헌에서 뽑은 용례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해당 문헌과 용례가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럴 때, 원천 이미지 자료가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문헌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어플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런 회사와 협력하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³⁾

방언사와 국어사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아이가 울면 '아이를 달겐다.'고 한다. 사람을 달랠 때도 '살살 달겐다.'고 표현한다. 다음 예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3) 이미지 파일을 텍스트로 바꾸는 앱은 구글번역이다. Google Translate 또는 인터넷에서 '구글번역'을 검색하면 된다. 내려받기(다운로드)하여 실행을 하고 그곳에서 카메라를 이용하면 사진을 찍어서 곧바로 텍스트로 바꾸어 준다.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어 주는 프로그램은 speechnotes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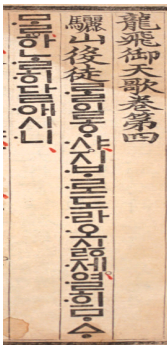
무신 일을 험 때 허드라도, 나를 살살 {달개감서} 히어. 나 설읍게 말고오.”
 <최명희, 혼불, 1996, 3, 21>

지그 마누라 {달개{달래}} 갖고 아들 줄막줄막헌 것을 디렸고{데리고}, 그래
 갖고는 그놈 달리고 대체 이부자리 쭈어지고 갔드래. <한국구비문학대계5-1,
 전북남원편,264’>

전북 방언의 ‘달개다’는 표준어로는 ‘달래다’이다. 그렇다면 전북 방언 ‘달개
 다’와 표준어 ‘달래다’는 어디에서부터 온 말일까?

왕이 미조차 가사 달애야 피셔 오샤 出家호 싫가 저흐샤 <1447석보상절
 3:16a>

驪山 役徒를 일흐샤 지브로 도라 오 싫 제 열희 므스물 하 놀히 달애서니
 <1447용비어천가,018>



<『龍飛御天歌』의
 ‘달애다’>

위의 예에서 사용된 중세국어 ‘달애다’는 연철 표기로
 하면 ‘다래다’로 표기되어야 한다. 연철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달애다’의 ‘애’의 ‘ㅇ’이 ‘ㄱ’이 약화된 성문유성마
 찰음 [ŋ]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달애다’보다 더 오래
 된 어휘는 ‘*달개다’인 것이다. 따라서 전라 방언에서 아
 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아이를 달개다’는 이미 중세국어
 보다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⁴⁾

이처럼 방언의 어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국어사
 문헌을 이용한다면 지역민들이 방언에 대한 인식을 새로
 게 할 뿐만 아니라 방언이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도 깨닫게 될 것이다.⁵⁾

- 4) 여기서 사용하는 『龍飛御天歌』의 이미지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인용한 것이다.
- 5) ‘우리말샘’에서 옛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은 완성형 글자를 골라서 입력한다. 이 방
 법은 전공자들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
 인다. ‘밍글다’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옛한글에 가서 ‘밍’자와 ‘글’자를 입력하고 ‘다’
 를 입력하면 된다.

‘국어 어휘 역사 검색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은 기초 어휘도 용례를 제시하고 그 용례의 한문 원문과 현대어역을 제시한 점은 매우 돋보인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어휘 해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땡꼰다

「001」 ‘만들다’의 옛말.

용례: 城 아래 닐흔 살 쏘샤 닐흐니 모미 맞거늘 京觀을 땡ㄴ르시니.《용가 40장》

원문: 維城之下 矢七十發 中七十人 京觀以築

번역: 성 아래로 일흔 발의 화살을 쏘시어 일흔 사람이 맞거늘 경관을 만드셨습니다.

용례: 制는 땡ㄴ르실씨라.《훈언 3》

번역: 制는 만드는 것이다. (이하 용례 생략)

사실상, 어휘 역사 검색의 경우 기초 어휘 표제항이 3,300개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어휘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한국어의 어휘 하나를 국어사, 방언, 현대국어, 문학어에 나타난 사례를 통하여 한꺼번에 그 변천과정과 의미를 연구해야만 명실공히 어휘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연구 결과가 국어사전에 그대로 올라가서 사용자들이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국어사 문헌 자료의 한글 텍스트 말뭉치는 이미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어사 연구자들은 이 텍스트 말뭉치를 사용하고 있다. 당시에 빠진 텍스트는 각종 국가의 용역 사업에서 입력되어 구축된 바가 있다.⁶⁾

국어사 텍스트 말뭉치는 국어사전에서 연동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

6) 예를 들면 홍윤표(2007)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세 국어 문법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신소설 말뭉치’와 ‘개화기 국어교과서 말뭉치’를 구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 결과로 나온 말뭉치를 빨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한꺼번에 링크하여 검색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검색이 될 것이다. 이미 국가의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물론 철저한 교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음성말뭉치와 이미지 말뭉치 등의 구축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자로 입력해 놓은 텍스트 자료는 주로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하였고, 이미지 말뭉치는 주로 ‘디지털한글박물관’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구축하였고, 그리고 음성말뭉치는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과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⁷⁾

2.2. 방언 이미지 말뭉치와 텍스트 말뭉치의 연동

‘우리말샘’이 국가의 표준어 정책과 방언 정책을 반영하고, 그리고 국어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면, 국립국어원이 각도의 방언사전을 정밀하게 구축하는 사업에 깊이 관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 방언사전은 제각각으로 편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 편찬 형식을 유사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북 등 각 지역에서 쓰이는 어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어휘들은 전북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어휘들인데 ‘우리말샘’에서는 ‘맨들맨들, 맨들맨들하다’만 올라 있다. 여기에 ‘맨드롭하다, 맨드롭히’까지 넣을 수 있다. ‘써득’과 관련된 어휘는 모두 ‘북한어’로 처리되어 있다. 전북방언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다.

맨들-맨들 「001」 「부사」 「방언」 ‘매끝매끝’의 방언(경남).

맨들맨들-하다 「001」 「형용사」 「방언」 ‘매끝매끝하다’의 방언(경남).

써득 「001」 「부사」 「북한어」 갑자기 몹시 써늘한 느낌이 드는 모양.

써득거리다 「001」 「동사」 「북한어」 갑자기 몹시 써늘한 느낌이 자꾸 들다.

써득대다 「001」 「동사」 「북한어」 갑자기 몹시 써늘한 느낌이 자꾸 들다.

7) 구어말뭉치는 최근 연세대에서 이를 바탕으로 ‘새 연세 말뭉치’란 이름으로 정밀하게 교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썩득썩득 「001」 「부사」 「북한어」 갑자기 몹시 썩늘한 느낌이 자꾸 드는 모양.
 썩득썩득하다 「001」 「동사」 「북한어」 갑자기 몹시 썩늘한 느낌이 잇따라 들다.
 「002」 「형용사」 「북한어」 갑자기 몹시 썩늘한 느낌이 계속 있다.
 썩득이다 「001」 「동사」 「북한어」 갑자기 몹시 썩늘한 느낌이 들다.
 썩득하다 「001」 「형용사」 「북한어」 갑자기 몹시 썩늘한 느낌이 있다.

표준어 의성·의태어 부사의 경우,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방언의 의성·의태어 부사의 경우에도 모두 이런 방
 식으로 단어형성이 가능한지를 점검하여 표제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름, 발름-거리다, 발름-대다, 발름-발름, 발름발름-하다, 발름-이다, 발름-
 하다, 발름-히

또한 각도에서 구축하는 방언사전이 단순히 어휘를 검색하는 사전을 벗어
 나 지역문화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방언문화사전으로 발전하려면 최소한 해당
 이미지와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한 ‘민족생활어’가 문화적인 어
 휘로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조사를 할 때, 문화적인 어휘에 사진까지
 곁들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전의 개념에 알맞은 구성이라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조숙정(2007:130)에서는 김치, 젓갈, 장아찌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여기에 전라도 방언으로 쓰이는 ‘알타리무’가 해설과 함께
 관련 사진이 곁들여져 있다. 각 지역의 방언사전에 이러한 지역 문화를 보여
 주는 사진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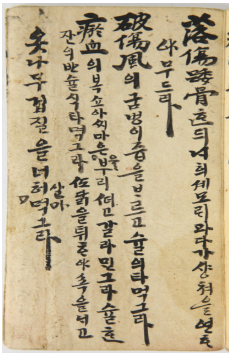
디지털 시대의 뜻풀이는 말로 하는 단편적인 뜻풀이가 아니라 사진을 곁
 들여 보여주거나, 보조적인 해설을 하면서 설명하는 복합적인 뜻풀이가 되어
 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진이 3D로 제공되는 날을 기대한다.

방언이 나오는 문헌이나 자료를 이미지화하는 작업은 아직도 초보적인 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어사 문헌이나 현대국어 자료에 비해 아직 방언 자료

에 대한 인식이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언사 자료, 한글고전소설, 판소리 자료를 살펴보면 많은 방언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헌이나 자료를 시급히 촬영해서 이미지 말뭉치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능한 부분에서 이미지 자료를 연계하여 다양한 방언의 문화 유산을 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어 연구와 문화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전북 방언의 ‘맹글다’와 관련된 어휘를 수진필사본 『經驗方』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經驗方, 29>

落傷接骨의 허 뇌 세모리 파다가 상처을 연혀야 무드라

破傷風의 굼병이 좁을 때 술의 타 먹그라

瘡血의 복쇼아씨 마은을 부리 썬고 갈라 {먹그라} 술 혼 잔의 반 술식 타 먹그라 또 닭을 튀혀야 속을 니고 옷나무 겹질을 너혀 살마 먹그라

<『經驗方』>

특히 한 장(쪽)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어휘 하나하나를 이미지화하여 하나의 어휘에 대해 개별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어사전을 통해서 단순히 국어 어휘의 뜻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문화를 이해하게 되어 한국문화 또는 지역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국어의 이해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전라북도 방언과 관련된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은각서록(蘊各書錄, 1890, 필사본), 석남역사(石南歷事, 1900년대 초, 필사본), 경험방(經驗方, 1811년 필사본), 아히들의 성태조비(1923년 필사본), 전라도 전교 약귀(1933년 필사본), 영산실록(瀛山實錄, 1939년 석판본), 봉계집(1894년 필사본), 養洞千字文(1858, 목판본), 杏谷本千字文(1862년 목판본), 무술본 千字文

(1898년 목판본), 을사본 千字文(1905년 목판본), 을묘본 註解千字文(1915년 목판본), 註解千字文(서계서포본 1911년 목판본) 등.

전주에서 발행된 천자문에서 ‘行’과 ‘沛’의 훈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면 효과적이다.

| | 양동본 | 행곡본 | 무술본 | 을사본 | 을묘본 | 필사본 | 서계서포본 |
|---|----------|----------|----------|----------|------------|----------|------------|
| 行 | 당길형 | 당글형 | 덩길형 | 딩길형 | 당길형 | 덩길형 | 당길형 |
| 沛 | 줏바질 피 | 줏바질 피 | 줏바질 피 | 줏바질 피 | жат바질 피 | 잡바질 피 | жат바질 피 |

현대 방언은 많은 수가 국어사의 변화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과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방언과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방언과 관련된 중세국어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방언이 나오는 방언사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자기 방언과 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지역의 방언사전의 편찬에서부터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움라우트, 구개음화, 전설고모음화, 원순모음화’ 등의 음운현상은 전북방언에서 아주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담고 있는 어휘들이 음운론적 이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다니다 - 땡기다’와 같이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땡기다’가 나오는 『천자문』, 『열녀춘향수절가』와 같은 방언사 자료와 그 텍스트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면 문화적으로 훨씬 다양한 사전이 될 것이다. 문헌을 다루지 않고 이미 입력된 텍스트에서 필요한 용례만을 뽑아서 글을 쓰는 태도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연구 자세이다.

현재 ‘우리말샘’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언 자료는 한정되어 있다.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방언 검색 프로그램’과 ‘문학방언 검색 프로그램’을 비롯한 국어원 자체 용역사업에서 구축한 방언이 약 11만 개 올라와 있다. 주로 기초적인 어휘 성격이 강하다.

현실적으로 방언 어휘의 음운론적 이형태를 최대한 올림말이나 관련어에

올려야 사전 검색에서 자유롭다. 실제로 집필 요구자의 제안을 보면 어휘에 대한 음운론적 이형태를 자꾸 제시하여 올림말로 올려달라는 경향이 매우 높다.

따라서 방언의 이형태를 최대한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간 이미 조사된 자료는 방언 말뭉치로 구축하여 한꺼번에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그간 손대지 않았던 지역 방언이 포함된 현대문학 자료, 구비문학 자료, 민요 자료, 판소리 자료, 방언사 자료, 한글고전소설 자료 등은 빨리 말뭉치를 구축하여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방언이 지역의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서 방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제로 지역에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고유어, 비어와 속어, 관용표현과 속담, 유행어’ 등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학작품이 가장 손쉽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서 해당 어휘와 관련어를 뽑아 언어의 유형에 따른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개 머루 먹다 : 아무 소용이 없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에라, 이 무식헌 놈아! 반식자 우환도 유분수지, 무식이 무신 자랑이라고 앓었다 허면은 {개 머루 먹딛기} 텍도 없는 소리로 상곡리 아는 체는 혼자 도맡아서 다 히고 자빠졌나?” <윤홍길, 낫, 2005, 451>

* 피를 활썬 벗다. : 알몸이 되도록 입을 옷을 모두 벗다.

아 이렇게 와서 문구멍을 뚫고 본게, 지 딸년이 그냥 {피를 활썬 벗고는} 깨끔 좃고(깨금발을 집고) 춘단 말여. <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불문곡직 달라들어 질질질 끄집어다 비오리 {피를 활썬 벗겨서}, 터럭이라 고는 다 쥐어뜯고 뽑아내 민둥이를 멍길었다대. <최명희, 혼불>

전북 지역 출신의 문인들이 쓴 시를 검토해 보면 필자가 알기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해설할 방도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 어휘는 자꾸 사라지고 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어휘들도 방언 연구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어휘들도 방언사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어휘가 사라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신석정의 <歸鄉詩抄>에서 방언이 나오는 일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술회사 앞에는 마을 아낙네들이 수대며 자배기를 들고 나와서 쇠자라기와
술찌경이를 얻어가야 하기에 부세부세한 얼굴들을 서로 쳐다보면서 차표 사듯
늘어서서 꼭 잠겨있는 술회사문이 열리기를 천당같이 기두리고 있음데다.

장에 가면 혼전만전한 생선이 듬뿍 쌓여있고 쌀가게에는 옥같이 하얀 쌀이
모대기 모대기 있는데도 어찌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쌀겨와 쭈시겨 진을 찌웃
찌웃 굽어보면 개미같이 웅개 웅개 모여서야 하는 것입니까?

2.3. 고전문학 이미지 말뭉치와 텍스트 말뭉치의 연동

고전문학의 이미지는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 고전소설만 해도 목판본, 활자본, 필사본 등 아주 다양하다. 그간 국어학 연구에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1) 고전소설 이미지 말뭉치

현존하는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종류는 23 가지이다. 이 가운데 판소리계 소설이 『열녀춘향수절가』, 『심청가』, 『심청전』, 『화랑도』, 『퇴별가』 등 5종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영웅소설이다. 판본이 다른 종류를 합치면 약 90여 종류가 된다. 1823년에 『별월봉기』가 발간된 것을 시작으로 1932년까지 발간되었다. 주로 1911년, 1916년에 대량으로 발간되었다.

경판본은 경기도 안성판이 1780년에 임경업전을 출판하였고, 서울에서는 1792년 장경전을 찍었다. 이로부터 약 70여 종류의 소설이 서울과 경기에서 출판되었다. 안성판은 조선시대 경기도 안성에서 출판된 목판 고전소설이다.

우리가 고전소설의 문헌을 확인만 했다면, 최소한 『열녀춘향수절가』와 『춘

8) 2016. 12. 6.(화)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신발굴 고전 소설의 작품 세계와 자료적 가치'란 제목으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희귀본 자료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향전』을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열녀춘향수절가』는 판소리계열 소설로 소위 ‘완판본’이라 불리는 소설이다. 『춘향전』은 제목으로만 볼 때, 경판본 계열의 소설이다. 이태영(20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완판본’의 사전적 개념과 실제 의미는 상당히 달라 빨리 수정되어야 한다. 『열녀춘향수절가』의 뜻풀이 일부를 괄호를 이용하여 수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완판본(完板本)

「001」 조선 후기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의 고대 소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 있어 향토색이 짙다.

열녀춘향수절가(烈女春香守節歌)

「001」 조선 시대(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발행한)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변화했기 때문에 ‘가’(歌)를 사용하고 있다.) 주인공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적 특권 계급의 횡포를 고발하고 춘향의 정절을 찬양하면서, 천민의 신분 상승 욕구도 나타내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이 소설에는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 있어 향토색이 짙어 경판본 『춘향전』과 차이를 보인다.)

사실 『춘향전』의 이본을 초기 목판본에서 필사본, 활자본까지를 제시하면 상당하다. 『춘향전』은 한글고전소설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된 소설이기 때문에 영화, 오페라, 연극, 창극, 소설, 시 등 아주 다양하다. 이런 내용들이 국어 사전에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고전 소설 텍스트 말뭉치

완판 목판본 고전소설의 말뭉치는 세종계획에서 일부 구축하였고, 주로 개인이 구축한 원시 말뭉치가 사용되고 있다. 완판본 고전소설의 특징은 일상 언어인 구어체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방언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서 방언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1세기세종계획과 KRpia에서 구축하였다.

경판 목판본 고전소설의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과 KRpia 등에서 구축된 바 있다. 경판 한글고전소설의 특징은 한문 번역체의 문체적 특징을 보이

고 있다. KRpia에서는 ‘한국방각본소설전집 1편, 한국방각본소설전집 2편, 한국신소설대계 1편, 한국신소설대계 2편’에서 원문과 현대어역문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경관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1세기 세종계획 특수자료 구축 역사자료 말뭉치 개발 분과에서 구축한 활자본 고전소설의 자료 목록(총35편 약60만 어절)이 있다. 소위 ‘딱지본’이라 일컬어지는 구활자본 고전소설은 세종계획에서 입력한 자료가 있다. 딱지본의 이미지도 여러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세종계획의 국어사말뭉치에는 낙산재본의 기행문, 역사자료와 같은 산문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한글고전소설 필사본은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각 대학 도서관이나 박물관, 개인이 소장한 자료들이 많을 것이다. 조희웅(1999, 2006)을 참고하면 필사본 소장처와 해제를 알 수 있다. 세종계획에서도 일부 구축하였다.⁹⁾

위에서 언급한 고전소설 이외에도 『한국구비문학대계』, 『MBC민요대전』, 판소리 사설 등의 자료가 입력되어 있다.

2.4. 현대문학 이미지 말뭉치와 텍스트 말뭉치의 연동

국어사전을 보면 올림말 어휘의 용례를 선택할 때, 현대소설과 현대시에서 뽑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들입다 「001」 세차계 마구.

맨 앞 줄 책상을 송군이 들입다 건너차는 바람에 그 뒤에 있던 책걸상들이 차례로 바닥에 나동그라지면서 지르는 비명이 분명했다. <<윤홍길, 묵시의 바다>>

말이 좋아 공장장이지 그동안 사장과 함께 들입다 돈 고생만 했지 월급 한번 제대로 못타 쓴 불평까지도 자발적인 헌신의 기쁨으로 바뀌었다. <<박완서, 오만과 몽상>>

9) 사전편찬에서 고전소설의 어휘와 용례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아직 고전소설의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중국번역소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고어대사전』을 완성한 박재연·이현희(2016)를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해당 현대소설이나 현대시의 원본의 책과 그 용례가 나오는 표지와 글꼴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면 문학작품에 쓰인 어휘를 보는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¹⁰⁾ 원전을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말샘’에서는 방언의 경우, 문학작품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용례를 충분히 찾아서 제시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라북도 방언사전』이 편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올림말에 용례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우 다행한 일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배어리다 : 표준어 ‘배짚다’, 형용사

(나이가) 아주 어리다. (나이가) 아주 젊다.

한 이십 남짓했을까말까, {배어린} 사람이다. <채만식, 上京半折記>

전북 지역의 출신 작가,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어휘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세대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그 뜻풀이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지역문화의 관점에서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문인들과 연계하여 이런 소중한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아름다운 우리말의 소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미처 이런 지역 문학작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끌썩하다 : 형용사 시끌벅적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며 떠들어 시끄럽다.

건강한 웃음이 {시끌썩하고} <노진선, 푸른 물빛 빛는 삶, 138쪽>

10) 최근 글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글 글꼴의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이러한 한글의 시대성을 보여주는 글꼴에 대해 전시회를 자주 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전북 전주시청에서는 전주에서 발행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을 바탕으로 ‘완판본 마당 순체’와 ‘완판본 마당 각체’를 개발하여 ‘호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글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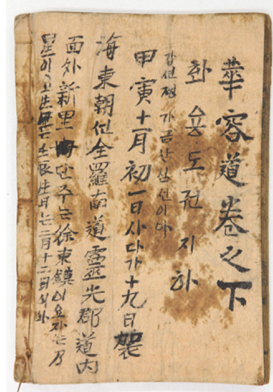
쫓치다

돌담 밑 / 전날에도 {쫓치고} 앉아 / 햇살 줘던 소녀야 <최승범,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어느 한 봄꽃에게, 26쪽>

2.5. 서지적 관점에서 이미지 말뭉치의 활용

대체로 문헌을 촬영할 때는 한 권 전체를 촬영한다. 표지부터 시작하여 모든 쪽을 촬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지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표지에서는 책을 쓴 모양을 얻을 수 있고, 손으로 필사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태영(2016L)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앞표지와 뒷표지의 이면인 배지에서는 다른 책들이 인쇄되어 있어서 같은 인쇄소에서 발간한 다른 책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배지에 그 시대 이전의 문서가 발견되기도 한다.



<완판본 『화용도』 뒷표지>

책의 앞뒤의 표지에는 책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또한 구입한 날짜, 책값 등의 정보가 발견되기도 한다. 첫 장 1쪽에서는 제목이 발견된다. 대체로 책이 끝나는 부분에서 발문이 있는데 책의 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간기가 있어서 책의 발행연도를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판권지가 붙어서 서점의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권의 책을 모두 촬영해야 하고, 그 책을 보는 연구자들도 문헌을 다양하게 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¹¹⁾

11) 책을 발행한 각종 정보를 한꺼번에 수록한 '판권지'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유사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 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중국본과 일본본 그리고 개인이 소장한 한국본의 판권지를 비교해 보면 그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디지털 자료의 웹사이트 활용

이미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는 수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다. 이는 협약을 맺고 저작권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국어사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어휘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어국문학과 관련된 자료가 소장된 소장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한글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국립한글박물관(<http://www.hangeul.go.kr>)이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한글 아카이브와 박물관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한글에 대한 학술 정보, 역사, 전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어사 이미지 말뭉치가 많다. 그간 한글에 관해 전시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2)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전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고전원문, 한국문집총간’등을 다루고 있다. 주로 원문, 번역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고전문학과 관련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

3) 인터넷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이미지 말뭉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이 사전은 텍스트 내용과 해당 이미지를 DAUM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주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이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며, 이미지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로고가 새겨진다.

4)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

이 사이트에서는 장서각 소장 고도서, 문중의 고문서, 왕실 고문서의 원문 이미지와 본문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방언자료집, 한국민요대관’ 등의 음성과 텍스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가 켜리가 아니고 흑백이 많은 것이 약점이다.

5)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¹²⁾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도서관으로 문학 관련 고도서, 족보, 잡지 등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고전소설, 방각본 자료 이미지들을 쉽게 검색하고 내려받기를 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도서관이다. 많은 자료 중 협약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흠이다.

6)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디렉토리서비스에서는 각 사이트와 연계하여 고도서, 고문서, 고전국역서, 잡지, 지도, 사전, 연표, 금석문 자료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편년자료 서비스에서는 근현대 신문을 검색할 수 있다. 연계 사이트로 들어가서 관련된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다. ‘시소러스 검색’에서 필요한 항목을 검색할 수 있다.

7) 문화재청(<http://www.cha.go.kr>)

이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재 유물 이미지와 그 배경 이미지 말뭉치를 검색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서 각종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춘향전, 광한루, 성춘향’ 등을 검색하면 관련된 이미지까지를 모두 검색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이미지를 일부만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8) 한국유성기음반(<http://www.sparchive.co.kr/v2/>)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http://www.78archive.co.kr>)

이 연구소에서는 1945년 이전에 기록된 모든 유성기음반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하여 출판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DB로 구축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웹서비스를 하고 있다. 유성기 음반의 이미지를 말뭉치로 구축한 기관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12) 또 다른 여러 기관, 예를 들면 ‘국회도서관’이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등에서도 자료를 검색해야 한다.

9) 국가전자도서관(<http://www.dlibrary.go.kr>)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 KAIST 과학도서관 등 주요 도서관의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10) 사이버 교과서박물관(www.textlib.net)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미지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11) 한국국학진흥원(<http://www.koreastudy.or.kr>)

주로 목판, 고도서, 고문서 등 국학 자료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12) 한국현대문학관(<http://www.knlm.or.kr>)

시집 표지의 이미지를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고, 시인과 소설가의 사진과 약력을 제공하고 있다.

1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유네스코 등재유산, 궁궐·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을 통합 검색할 수 있다. 기록유산의 경우, 서지, 해제, 원문이미지, 원문텍스트, 국역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사이트이다.

14)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디지털 탐본(탁본)'을 체험할 수 있고, '3D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15) 기타

각 대학과 지역 박물관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북대 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이미지 말뭉치를 구축, 전국 대학 고문서를 통합하여 구축하였다. KRpia에서 검색이 가능하다.¹³⁾ 『춘향전』 관련 자료는 남원향토박물관

13) 현재 국어 관련 이미지 말뭉치는 홍윤표 교수가 제일 많이 소장하고 있다. 이리

에도 다수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문자, 한글, 방언 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영상 이미지를 방송국이나 하청업체에서 구축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EBS에서 교육용으로 많이 제작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결론

앞으로 ‘우리말샘’의 사전 형식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우리말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색 시스템에 익숙하게 되면 종이사전은 이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샘’의 사전 구조는 지금보다 훨씬 자세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이 종합적으로 잘 구축되면 한국어 번역기, 통역기 개발에 매우 유용하다. 이미 구글에서 제공하는 번역기의 성능을 시험해 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샘’의 검색 구조를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그간 수행한 용역사업을 중심으로만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좀더 적극적으로 관련 국가 기관에서 수행한 내용을 링크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각 대학에서 많은 정규과목을 동영상 강의로 만들고 있다. 동영상 강의를 할 때, 단순히 강의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강의 보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미 위에서 말한 국어학 관련 자료들, 고전문학 관련 자료들, 현대문학 관련 자료들이 직접 제시되어야 훨씬 사실적인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미지(사진,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앞으로 인문학 중 특히 국어국문학이 디지털 기술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공계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여 활용하는 방법도

한 이미지가 저작권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지학 연구자들이 소장한 고서 이미지 말뭉치가 있으나 개별 연구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과목에 문화와 디지털과 관련된 교과목을 넣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MBC문화방송(1995) 『한국민요대전』.
- 국립국어원(1998-2007),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언어정보화 검색 프로그램』
방언 말뭉치.
- 국립국어원(2005-2012), 『지역어 조사 보고서』 음성전사파일.
- 국립국어원(2007-2012),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 박재연·이현희 주편(2016), 『고어대사전』,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 이창현(1995),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태영(2013), 「완판본의 개념과 범위」, 『洙上古典研究』 38, 9-36.
- 이태영(2016ㄱ), 「국어사전과 방언의 정보화」, 『국어문학』 61, 51-75.
- 이태영(2016ㄴ), 「배지를 활용한 완판본 연구」, 『洙上古典研究』 49, 281-311.
- 조숙정(2007),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6』, 국립국어원.
- 조희웅(1999), 『古典小說 異本目錄』, 집문당.
- 조희웅(2006), 『고전소설 연구보정(상, 하)』, 박이정.
- 홍윤표(2006), 「디지털 시대의 국어학」, 『국어국문학』 143, 9-31.
- 홍윤표(2009) 「최근세 국어 문법의 연구」, 한국연구재단 결과보고서.
- 홍윤표(2010), 「인문학에서 자료의 구축과 활용」, 『언어사실과 관점』 26,
5-46.

【Abstracts】

The direction of the dictionary compilation in the digital age

Lee tae y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Korean language dictionary 'Urimalsaem' which is currently operated 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website and to suggest complementary measures for the digital era and culture era.

Since the digital age is an era of information and culture, users of 'Urimalsaem' want not only the meaning of vocabulary, but also culture related to vocabulary. if 'Urimalsaem'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dictionary that meets the needs of users, it should provide various contents by combining digital technology.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of linking Korean history image corpus with text corpus, linking dialect image corpus with text corpus, linking classical literature image corpus with text corpus, linking modern literature image corpus with text corpus, we proposed a method to utilize image corpus from the viewpoint of bibliography of old books. and we present the collection institution of digital materials and suggested ways to utilize the information of the website.

key words : digital, Urimalsaem, korean history, dialect, classical literature, modern literature, bibliography.

이 논문은 2018년 09월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11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11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